

「한국관광학회 고문 회고록」:
지금 記憶되는 이야기들

申 鉉 柱
제 13대 회장
Shin, Hyun-Ju

I. 하 나

충남 관광 학술대회와 학회 총회가 있는 후 새롭게 시작하는 20대 한국관광학회 임원들을 위한 워크숍이 강원도 태백시 O₂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전임 회장으로 구성된 고문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어 학회를 위해 일하고 계신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동안 우리학회가 맺어 온 결실들을 보고 받고 또 새롭게 구성된 임원들의 포부와 계획들을 들으면서 학회회원의 일원으로 그 동안 참여해 온 일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본인이 회장으로 일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IMF 구제 금융을 신청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당시 부회장이셨던 김사현, 김진탁, 손해식 교수님과 총무 이사였던 김성혁 교수님 그리고 임원들과 학회 회원들의 열성적인 협력으로 연구활동, 저술활동, 학술심포지움, 국제 협력 활동들이 잘 이어져왔다고 생각된다.

전임 회장이었던 한양대학교 손대현 교수님은 학회 활동이 회장선출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이 소비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수석 부회장 제도를 정관에 신설하여 차기 회장을 미리 정하는 획기적인 결정을 하였다.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동안 우리 학회가 전국학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울 이외의 지역의 교수님으로서 유능하고 헌신적으로 학회를 이끌어 가실 분이 수석 부회장으로 선출되게 하였다.

내 기억으로는 처음 학회를 시작했을 때에는 경기대, 경희대, 한양대, 동아대, 계명대, 세종대 교수들이 주로 앞장을 섰으며 이장춘, 김충호, 김상무, 손해식, 안중윤

교수님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진섭, 김병문, 정경훈 교수님이 많이 애쓰셨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이 회장으로 있을 때 이충기, 김정만, 엄서호, 이태희 같은 젊은 교수들이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기억된다. 그 때 관광학회회원 명부를 보면 약 200여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번 조명환 회장님이 만드신 회원명부에는 1,000여명이 넘게 수록 되었다. 회원 수만 보아도 우리 학회가 크게 성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The Asia Pacific Tourism Association(APTA), Council on Hotel, Restaurant and Institutional Education(CHRIE), Society of Travel & Tourism Educators(STTE) 등 국제회의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한국 교수님들이 세계 각국의 우수한 대학과 연구 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을 보았다. 또한 본인이 구독하고 있는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s,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Journal of Teaching in Travel and Tourism,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Cornell Quarterly, Pacific Tourism Quarterly 등 논문집에서 많은 우리 교수님들의 우수한 논문을 읽게 되어 정말 흐뭇하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학회 모임과 학술지에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여 우리 학회와 우리나라 관광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20대 임원들의 건투를 빈다.

II. 들

1983년 가을부터 일년동안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에 있는 Georgia State University에 방문교수로 갔던 일이 있다. 도시 한 복판에 위치한 이 대학교는 특히 College of Public and Urban Affairs, Hotel, Restaurant and Travel Administration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학교를 처음 방문한 날 William Suttle 부총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학장인 Patti Shack 교수를 찾았다. Shack 교수는 본인을 만나자 Urban Affairs 대학의 학생회장이 한국학생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도력도 뛰어난 학생이라고 자랑하였다. 그날 학장실에 가서 처음 그 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Kaye Chon (전계성)이었다. 지금은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의 학장으로 널리

알려진 학자로 성장 했지만 그 때는 부인과 아이들까지 있는 유학생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 후 Las Vegas의 UNLV에서 석사학위를 한 후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 교수로 있다가 University of Houston으로 옮겨 갔다.

지금은 Hong Kong에서 전 아시아 관광 교육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그가 시작한 Asia Pacific Forum for Graduate Student Research in Tourism이 최근 서울에서 열렸고 내년에는 일본에서 열린다. Harwarth Hospitality Press에 편집 책임자로서 많은 논문과 책을 출간 하였고 어느 해인가 CHRIE 총회에서 최고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그와 함께 우리관광학계의 많은 교수님들이 국제적인 학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학생 때 정말 열심히 살아가던 그 모습이 새롭다.

그 때 Georgia State University에서 만났던 다른 한 학생이 이연택 한양대학교 교수이다. 다른 나라에서 만나게 된 우리 세 사람은 한국관광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당시 일반 경영학을 공부하던 그는 자신이 있었던 관광공사의 일을 생각하며 그 즈음 관광학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안다. 그 후 Washinton D.C.로 학교를 옮겨 관광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한양대학교 교수로 그리고 한국관광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우리 학문분야에 업적을 쌓고 있다. 두 사람을 1980년대 초에 아틀란타에서 만난 것을 행운으로 여기면서 앞으로도 그들이 우리 분야에 더욱더 큰 공헌을 하기를 기대한다.